자갈, 대벌레 그리고 인간:
『마이클 K의 삶과 시대』에서 윤리적 저항

손 희 지

존 쿳시(J. M. Coetzee)는 『동물로 산다는 것』(*The Lives of Animals*)에서 엘리자베스 코스텔로(Elizabeth Costello)의 입을 빌려 축산업과 동물권, 인간과 동물의 관계 등의 문제를 다룬다. 소설가인 그녀는 동물권을 주제로 애플턴 대학(Appletone College)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스텔로가 사용한 비유는 청중뿐만 아니라 독자까지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녀는 가축 수용장과 도살장을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빗댄다. 인간은 가축에게 "제3제국이 한 일에 비할 만한, 실제로는 그것을 능가하는"(rivals anything that the Third Reich was capable of, indeed dwarfs it)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수용소 희생자들의 체지방과 머리카락이 각각 비누와 매트리스를 만드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식육 산업은" 나치의 무분별한 학살과 달리 "궁극적으로 생명을 위한 것"(the meat industry is ultimately devoted to life; 21)이라는 변명은 설득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턴 대학의 유대인 교수, 에이브러햄 스턴(Abraham Stern)은 "유대인이 소처럼 취급받았다 해서, 소가 유대인처럼 취급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If Jews were treated like cattle, it does not follow that cattle are treated like Jews; 50)는 내용의 항의 편지를 보낸다. 그의 분노에는 비록 유대인이 참혹하게 학살되었을지라도 그들은 분명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코스텔로가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동물을 나란히 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녀의 주요한 목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위계를 무너뜨리고 동물권을 옹호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동물에게 인간과 같은 특권을 주기보다 인

간을 짐승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그녀의 전략을 곱씹으면, 우리는 쿳시의 관심이 '진짜 동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동물 취급 받아온, 그리고 아직도 인간의 지위를 얻지 못한 타자에게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클 K의 삶과 시대』[1](*Life and Times of Michael K*)는 이렇게 비-인간(non-human)으로 여겨지는 타자의 생존과 저항에 관해 이야기한다. 작품의 주인공인 마이클(Michael) K는 언청이로 태어나 어머니에게조차 혐오의 대상이 되고, 어린 시절부터 체제에 순응하는 법을 배운 인물이다. 그는 폭동으로 황폐해진 도시를 탈출해 어머니의 고향 프린스 앨버트(Prince Albert)를 찾아가지만, 병든 어머니는 중도에 돌아가시고 만다. 한편 마이클은 이동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수용소에 끌려간다. 세 번에 걸친 마이클의 감금과 탈출, 수용소 안팎에서의 경험은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장치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우선 수용소라는 공간에 집중해 지배 권력 또는 국가가 어떻게 타자를 억압하면서도 자기 정체성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그들을 이용하는지 살핀다. 마이클이 머무는 세 수용소는 모두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곳에서 그를 비롯한 흑인 부랑자와 하층민의 신체에 철저한 통제와 훈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동일하다. 조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이 이런 권력의 작동 양상을 분석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어 필자는 마이클이 비-인간, 즉 사물·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해, 권력에 의해 분해되고 도구화된 몸의 물질성을 '우회적으로' 회복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비-인간이 됨으로써 타자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려는 욕망을 비켜나고, 그것에 저항하며 다른 타자와 연대한다.

아감벤은 근대에 이르러 인간의 생명[2]과 신체가 정치권력의 메커니즘에 포

---

1) 이하 『마이클 K』로 표기한다.

2) 그리스인들은 '삶'(life)을 조에(*zoē*)와 비오스(bios)로 구분했다. 조에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것으로 '살아 있음' 자체를 나타내는(expressed the simple fact of living common to all living beings) 것이며 비오스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특유한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indicated the form or way of living to an individual or a group; Agamben 9) 조에는 먹고, 자고, 배설하는 등의 생리학적 차원에서 신체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조에)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신체 역시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섭되었다고 본다. 인간의 존재 자체, 즉 생명을 "국가의 법적-정치적 질서"(juridico-political order of the nation state; 75)의 기반으로 하는 인권 사상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 국가의 "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신체를 필요로 하며"(law needs a body in order to be in force) "신체를 소유하기를 욕망한다"(desire to have a body; 73). 법은 개인의 신체를 구금하거나 유용하고, 법을 관장하는 주권자의 권력 역시 타인의 신체를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때 주권자는 법질서가 미치지 않는 예외 영역과 그에 속하는 존재 호모 사케르(homo sacer)[3]를 규정할 수 있는 이를, 호모 사케르는 누구나 "죽일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may be killed and yet not sacrificed; 12) 인간을 가리킨다. 이런 상황에서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 사이의 위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진다. 생명을 지닌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으로 간주되면서 타자와 시민의 경계는 "삶과 죽음을 나누는"(separating life from death; 77) 경계로까지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 죽음의 영역 또는 "벌거벗은 삶의 영역"(the realm of bare life)에 떨어진 인간은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예외적 존재가 된다. 또 이곳에서 "배제와 포함, 외부와 내부"(exclusion and inclusion, outside and inside)는 "환원 불가능한 비식별 구역"(a zone of irreducible indistinction; 12)으로 들어선다. 따라서 호모 사케르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주권자의 대립항으로서 다시 법질서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불안정한 존재가 된다.

『마이클 K』가 주로 그리는 것이 바로 호모 사케르이다. 흑인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백인들에게 있어 차별정책과 식민주의의 폭력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게릴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할 위협이다. 한편 흑인 부랑자와 하층민은 "이분법적 질서"(binary orderings), 백인들의 도시와 반란 세력의 거처인 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골칫거리"(a nuisance)이다(Teimouri 34; Coetzee, *Life and Times* 80). 이들은 게릴라와는 다르게 미묘한 방식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백인들을 "불편하게"(get upset) 만들기 때문에 수용소라는 예외의 공간으로 밀려난다(Coetzee, *Life and Times* 88). 그곳에서 늙고 병들어 떠도는 사람들과 여성, 아이들은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

3) 직역할 경우 '신성한 인간'이라는 뜻이다.

과 시설만을 제공 받으며 호모 사케르가 된다.

> 그들은 우리가 병균을 옮긴다고 말했소. 불결하고, 도덕성이라곤 없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악의 소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 이건 내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보이지 않는 곳, 쿠프 한가운데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다가 수용소를 두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한밤중에 요정이나 된 것처럼 까치발로 찾아와 일하고, 정원에 구덩이를 파고, 화분도 씻은 다음, 아침이 되면 모든 걸 깔끔하고 멋지게 정돈해 놓고 사라져 버리는 거지.
> We breed disease, they said. No hygiene, no morality. A nest of vice, men and women all together. . . . What they would really like—this is my opinion—is for the camp to be miles away in the middle of the Koup out of sight. Then we could come on tiptoe in the middle of the night like fairies and do their work, dig their gardens, wash their pots, and be gone in the morning leaving everything nice and clean. (81-82)

마이클이 두 번째로 끌려간 야칼스드리프(Jakkalsdrif)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로버트(Robert)는 수용소 사람들의 처지를 위와 같이 설명하는데, 이는 아감벤이 구체화한 호모 사케르의 형성 과정을 축약해 보여준다. 성소(惺所)가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일반인에 의해 침범 불가능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시 사회에서는 불결한 것, 가령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출산한 여성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터부라는 민족지학적 개념”(the ethnographic notion of taboo; 49)이 들어오는 순간, 배제와 추방의 원칙은 경외의 대상을 슬그머니 오염원 또는 저주받은 것으로 뒤바꾼다. 누구든 ‘호모 사케르’를 살해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말에는 신성함과 불결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소 사람들이 “병균을 옮긴다”라는 백인들의 믿음은 호모 사케르의 특성 그 자체인 동시에 누군가를 호모 사케르로 낙인찍는 명분이 된다. “위생” 면에서든 “도덕” 면에서든, 불결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불결한가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마땅히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그렇게 수용소는 정당성을 얻는다. 일단 호모 사케르가 된 이들은 공동체의 안과 밖을 떠돈다. 수용자들의 노동은 백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정작 백인들은 “요정”이 다녀가 마법처럼 일을 하고 갔다고 생각하고 싶을 뿐, 이들

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철도청과 농부들을 위해 일하는 수용자는 한시적으로 공동체의 내부에 들어오지만, 곧 '세균 배양 접시'로 강등되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추방당한다. 주권자의 우월한 지위를 증명하면서도 결국은 지워져야만 하는 수용자들의 처지는 적어도 적으로서 분명하게 인지되는 게릴라의 삶보다 더 가혹하다.

수용소 내부에서는 권력이 개인의 몸 깊숙이 침입한다. 프린스 앨버트로 향하던 마이클은 허가서가 없다는 이유로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강제 노동 현장으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감독관과 경비"(an overseer and a guard; Coetzee, *Life and Times* 42)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일제히 식사하고 일한다. 푸코는『감시와 처벌』에서 "폐쇄"(enclosure; 141)와 감시, "시간표"(time-table; 136)의 사용을 "유순한"(docile; 149) 신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한다. 마이클이 경험한 것과 같이 권력은 "시간, 공간, 움직임을 가능한 한 세밀하게 분할"(partitions as closely as possible time, space, movement)하여 신체의 가치를 오직 "효용성"(utility; 216)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몸은 노동하는 도구가 된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수용소, 작품의 2부가 배경으로 하는 재활 수용소(rehabilitation camp)에서도 그는 자기 몸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마이클의 몸은 마치 수용소의 시간과 공간이 분할되듯이, 갈라진 입술과 앙상한 다리, 포도당 튜브를 꽂을 콧구멍으로 분해되어 진찰된다. 하나의 유기체이자 인간의 의지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몸은 사라지고 언제든 관찰하고 개조하기에 유용한 조각만이 남는다. 또 군의관은 먹기를 거부하는 그를 어떻게든 살찌워 "구호를 외치고 국기에 경례하는"(shout slogans and salute the flag; Coetzee, *Life and Times* 133) 생활로 돌려보내려 한다. 규율의 궁극적 목표가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면에서 신체의 힘을 증가시키고, 복종이라는 정치적 면에서는 감소시키는"(increases the forces of the body (in economic terms of utility) and diminishes these same forces (in political terms of obedience); Foucault 138) 데에 있다는 푸코의 이러한 지적은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용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수용소를 중심으로 촘촘히 짜인 권력의 그물망에서 마이클은 탈출을 감행한다. 그렇다고 그가 게릴라처럼 백인들에게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당

장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용소 관리자들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끝없는 탈출 시도는 자발적인 비-인간화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는 인간이 아닌 존재 - 사물 또는 동물 - 와의 동일시를 경험하는데, 이렇게 이미 권력에 의해 재단된 인간의 신체를 버림으로써 생존하는 것이다. 수용소의 인간이 "우리에 갇힌 동물"(animals in a cage; Coetzee, *Life and Times* 88)처럼 생활하고 있으므로, 또 그의 신체가 규율에 의해 철저히 도구화되기 때문에 비-인간화가 결국 권력에의 순종을 나타낸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이클의 사물화 또는 동물화는 주권자에 의해 강제된 예외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즉 호모 사케르의 자리를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굴복이나 순종이 아니다. 이는 기존의 질서로 설명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려는 몸짓이다.

신체적 결함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마이클은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조용히 하는 법을 배운다"(learning to be quiet; 4). 이내 그는 휴이스 노리니어스(Huis Norenius)라는 기숙학교로 보내져 기숙사 문에 붙은 온갖 규칙을 익히고 직업 교육을 받으며 평범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갈 준비를 한다. 그의 유년기는 침묵과 그를 기존의 질서 안에 동화시키려는 시도로 점철되어 있다. 이후 사회에 나온 그에게는 다시 평범한, 정원사로서의 일이 주어진다. 서술자는 이렇게 마이클의 30년을 채 한 장이 안 되는 분량으로 요약해 버린다. 더군다나 그의 어조에서는 마이클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도, 하다못해 어린 그의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과 같은 조롱도 느껴지지 않는다. 시종일관 담담한 서술자의 태도는 마이클의 삶이 어떤 특별한 감정도 필요하지 않은 평범한 것이고, 따라서 그의 존재 역시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런 마이클이 독자에게 자기 존재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비교적 평범하고 인간다운 삶에서 튕겨져 나와 폭동으로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서 시간을 보낼 때이다. 마이클과 어머니가 살던 씨 포인트(Sea Point)에서 어느날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고, 그는 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부어만(Buhrmanns) 씨의 빈 아파트에 머물며 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한다. 인간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곳에서 마이클은 버려진 잡동사니와의 일체감을 경험한다. 그와 사물 사이에 나타나는 이 기묘한 유사성은 독자에게 마이클을 하층민이나 장애인이라는 '유형'이 아니라 분명한 실재로서 각인시

킨다. 쓸모 없어진 물건들에서 마이클은 절망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부엌 찬장을 뒤져 잡지를 찾아내고 라디오를 "만지작거린다"(fiddling with it). 텅 빈 아파트에서 이것저것 발굴해내 주변에 늘어놓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가 물건들 사이에 '녹아들어' 간다는 느낌이 든다. 이어 마이클이 라디오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단조롭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found himself singing tonelessly along) 장면에서는 도대체 누가 말하고 있는 건지가 불분명해진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in a language he understood not a word of; 16) 떠들어내는 기계와 그 기계만큼이나 "단조롭고",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못하는 마이클의 노랫소리가 겹치는 것이다. 그는 신문에 실린 "카미스크룬 살인자"(Khamieskroon killer; 17)의 사진을 오려 냉장고에 붙여 놓기도 한다. 고개를 들 때마다 마이클은 사진 속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데, 이때 살인자의 눈이 마이클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클의 시선이 어디에서든 그에게 머문다.[4] 그렇기에 살인자의 사진에 생명력이 스민다기보다는 반대로 마이클이 주변 물건들과 함께 어떤 고정된 순간, 거대한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5] 이때 주목할 점은 그가 오직

---

4) [W]hen he looked up from his intermittent work on the wheels, his eyes continued to meet those of the man from Khamieskroon, wherever that was. (Coetzee, *Life and Times* 17)

5) 카미스크룬 살인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도시 카미스크룬에서 백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실존 인물이다. 애트웰(Attwell)에 의하면 쿳시는 작품 구상 단계에서 마이클이 독일 작가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Heinrich von Kleist)의 『미하엘 콜하스』(*Michael Kohlhass*)를 읽게 하려 했으나 이후 살인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읽는 것으로 수정하였다(92-93). 『미하엘 콜하스』는 『마이클 K』의 모델이 된 작품으로, 두 작품 모두 허가증의 부재로 인해 곤란에 처하고, 권력에 억압받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88). 하지만 애트웰이 지적하듯 마이클은 콜하스 또는 카미스크룬 살인자와 달리 "폭력을 수용하지"(embraces violence; 96) 않는다. 본문에서 인용한 장면을 통해서도 마이클이 폭력에 기대지 않고 권력에 저항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선의 교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마이클이므로 카미스크룬 살인 사건이 그의 태도나 앞으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남녀 군인들의 이야기"(stories of military men or women)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던 마이클이 살인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의 얼굴에서 "조용한 성취감이 깃든 미소"(smile of quiet achievement)를 읽어내기까지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Coetzee, *Life and Times* 17). 군인들은 지배계층을 수호하는 공권력으로서 카미스

버려진 물건들 사이에서만 사물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또는 마이클이 본래 속해 있던 사회 질서와 관련된 물건은 그를 위험에 빠뜨린다. 가령 돌아가신 어머니의 소지품과 돈을 지니고 있던 그는 경찰에게 불시검문을 받고 한 군인에게는 가진 것을 내보이라며 총으로 위협당하기까지 한다. 이런 물건들은 그를 끊임없이 차별하고 통제하려는 사회 안으로 마이클을 끌어들일 뿐이다. 반면 버려진 물건 더미에서 시간을 보낼 때의 마이클은 평온해 보인다. 버려진 물건들은 팔다리가 퉁퉁 부어 찾아간 병원에서 사실상 '쫓겨난' 어머니, 안나(Anna) K와 제대로 발붙일 곳 하나 없는 마이클 그 자신과 닮아 있다.

그렇게 자신과 비슷한 사물의 일부가 된 그는 허가증 없이도 버려진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고, 무엇이든 만지며, 자기 의지로 잡지를 찢거나 손수레를 만들기도 한다. 이 순간 그의 신체는 수용소 사람들의 신체와 뚜렷이 대비된다. 수용자들의 몸은 권력이 작용하는 장소였다. 강제 노동에 의해 이들 몸의 운동능력은 서서히 "개발되고 통제된"(invested and controlled) 반면, 수용소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수용소에서 개인의 신체에 "체현된 주체적 에이전시"(embodied subjective agency; Crossely 108), 신체를 자신의 것으로 인지하고 자기 의지에 따라 운용하는 능력은 권력에 전유 되거나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용한 장면에서 마이클은 권력의 명령 없이도 자유롭게 행동한다. 사물화를 거쳐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 그는 권력과 사회에서 훨씬 더 멀어지지만, 이를 통해 역설적으로 에이전시를 얻는 것이다. 이때의 마이클은 타자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즉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존재를 확립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의 후 비-인간화는 더욱 뚜렷하게 진행된다. 마침내 프린스 앨버트에 도착한 그는 버려진 피사기(Visagie) 농장에 머물며 염소를

크룬 살인자와 같은 범법자를 색출하고 처벌한다. 마이클과 시선을 교환하며 그의 사물화에 동참하는 것은 이런 군인들이 아니라 범법자이다. 또 마이클이 읽어내는 살인자의 성취감은 그가 백인을 향한 분노와 저항 의식에 공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마이클 역시 "법이라는 개념 자체의 ... 바깥에 있는 범법자"(an outlaw who is so far beyond the reach of . . . the very idea of law; Attwell 92)가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카미스크룬 살인자 장면은 그가 법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타자(또는 범법자)로서 다른 약자들과 연대할 것임을 암시한다.

사냥한다. 사냥한 짐승의 배 깊숙이 손을 넣어 진흙과 내장으로 뒤범벅될 때, 피 냄새에 이끌려 그의 주변에 파리가 꼬일 때, 마치 마이클 자신이 염소의 사체가 된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말을 거의 하지 않던 그는 "올빼미처럼"(like an owl) 기침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소리든 낼 수 있다"(I can make any sound I like; Coetzee, *Life and Times* 56)는 확신을 얻는다. 마이클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목소리는 그가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때에야 비로소 회복된다. 인간이었을 때는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했던 그가 점차 사물과 동일시되면서 움직임을 되찾았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동물로서의 삶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마이클의 유년기가 보여주듯이 규칙은 개인을 억압하는 동시에 그가 기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규칙과 침묵은 마이클이라는 사회 속 인간을 정의하는 말이자 언청이에 굼뜬 그가 멸시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단이었다. 그런 그에게 문명사회의 질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일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다. 피사기 농장에서 감기에 걸린 마이클이 꾸는 꿈이 이를 방증한다. 꿈에서 그는 휴이스 노리니어스의 기숙사에 누워 있다. 어린 마이클은 다른 소년들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 한 채 어둠에 집어삼켜질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낀다. 휴이스 노리니어스는 아이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be divided, the sheep from the goats; 110) 곳으로, 사람의 가치를 효용성을 기준으로(노동이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든) 평가한다는 점에서 작은 수용소와 같다. 일시적 해방감을 맛본 마이클이 곧 극심한 불안 속에서 휴이스 노리니어스로 돌아가는 꿈을 꿨다는 것은, 오랜 시간 그를 길들인 권력의 힘이 아직 건재함을 나타내는 한편, 마이클이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규율의 세계와 무법지대인 벨트(Velt)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야칼스드리프의 수용소에서 탈출한 뒤부터 마이클은 비-인간성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 그는 다시 벌레를 먹었다. 시간이 끝없이 흐르는 개울처럼 쏟아졌기에, 그는 오전 내내 개미굴에 배를 깔고 누워 풀대로 하나씩 유충을 꺼내 입에 집어넣었다. ... 그는 뿌리도 먹었다. 중독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었다. 마치 이전에 동물이었던 것처럼, 영혼 속에 좋은 풀과 나쁜 풀에 대한 지식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그는 무해한 쓴맛과 해로운 것의 차이를 알 수

> 있는 것만 같았다.
> He returned to eating insects. Since time was poured out upon him in such an unending stream, there were whole mornings he could spend lying on his belly over an ant-nest picking out the larvae one by one with a grass-stalk and putting them in his mouth [...] He also ate roots. He had no fear of being poisoned, for he seemed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benign bitterness and a malign one, as though he had once been an animal and the knowledge of good and bad plants had not died in his soul. (102)

사냥한 염소 고기를 먹을 때 마이클은 자기가 "야만인"(savage; 52) 같다며 혐오감을 표했었지만, 이제 개미핥기라도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벌레 유충을 꺼내 먹고 "영혼에 각인된" 동물적 본능에 자신을 내맡긴다. 그에게는 더 이상 피사기 농장의 집도 필요하지 않다. 시각보다 "눈알에 무언가 닿는 감촉"(the pressure of presences upon his eyeballs), "냄새"(smell)에 의존하는 법을 배운 그는 굴속에서, 수용소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았던 "게으름"(idleness; 115)을 만끽하며 살아간다. 이전과 달리 휴이스 노리니어스에 갇히는 꿈을 꾸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의 몸은 점점 가벼워져 "날 수 있을 것만 같은" (It seemed possible to fly) 상태가 된다. 이 순간 그는 수용소가 원하는 노동하는 인간도, 돈을 내야만 음식을 살 수 있는 사회 속 인간도 아니다. 규율과 노동에 억눌리던 타자의 몸은 이렇게 "지극한 기쁨"(deep joy)을 느끼는 "육체적 존재"(physical being; 102)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사물 또는 동물로 살아가며 마이클은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지만 '포함되지는 않는' 독특한 지위를 갖게 된다. 호모 사케르가 배제되었지만 주권자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공동체에 포함되어야만 했던 것과 달리, 마이클은 자신을 예외로 만듦으로써 그 권위를 흔들어 놓는다. 재활 수용소의 군의관이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처음 마이클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당신을 구하고, 당신의 본래 영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I am the only one who can save you. I am the only one who sees you for the original soul you are; 151)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마이클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마이클에게 어떤 서사를 부여할 수 없

음을 깨닫는다. 군의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이클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자갈"(a pebble; 135) 또는 "대벌레"(a stick insect; 149)이기 때문이다. 마이클이 모든 음식을 거부한다는 사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는 수용소의 음식이 자신을 다시 노동하는 기계 또는 체제에 들어맞는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에 단식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군의관은 쇠약해진 마이클에게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탈출한 마이클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기에 이른다. 마이클이 떠난 후, 환상 속에서 "내가 당신을 이해했나요?"(Have I understood you; 167)라며 필사적으로 질문하는 군의관의 모습에서 그가 이제 자기 권위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혔음을 알 수 있다. 수용소 관리자로서 누군가를 호모 사케르로 규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의사로서 타인의 신체를 조작할 능력 모두 마이클의 앞에서는 무력해질 뿐이다.

군의관의 의심은 자신의 역할과 권위에 대한 것을 넘어 타자를 억압해 온 사회와 역사 전체로 퍼져나간다. 군의관은 본래 전쟁이 "소수자들이 그들의 운명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minorities will have a say in their destinies; 157)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작품은 그것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 위한"(taking other people's money; 37) 것, 즉, 집 없이 떠도는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서 노동력을 착취하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마이클을 통해 역사가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을 이해한다. 사무엘 두란트(Samuel Durrant)는 역사가 개인의 기억을 공동의 기억으로 환원하고, 과거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식"(recognizable form)을 부여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는 지워지고(efface the difference of history; 437) 역사의 주체가 되지 못한 타자는 "동일자의 내부로 흡수된다"(absorption of difference into the self-same; 436). 두란트가 지적한 역사의 특성은 군의관의 독백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해진다. "역사는 혼돈 속에서 패턴을 만들어 내고, 자신에게 의기양양한 의미를 부여하지만"(pattern is born from chaos and history manifests itself in all its triumphant meaning) 백인과 게릴라가 충돌하는 사이 고통 받는 약자들의 이야기는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담론화하려는 역사의 힘 앞에 개인의 시간, 반복되는 일상과 사소한 사건은 "공

허해"(empty; Coetzee, *Life and Times* 158)질 수밖에 없다.

군의관이 보기에 이 "역사의 소용돌이"(currents of time swirling; 158) 속에서도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는 재활 수용소의 간호사 펠리시티(Felicity)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분법 또는 권력의 대립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역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시트를 세탁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상에 집중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이클도 역사화 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간다. 수용소는 마이클이 백인 사회를 위해 노동하게 만듦으로써 그를 어떻게든 대립 구도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사물-동물이 된 그에게 인간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정확한 시간을 알고 그에 맞춰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백인들을 위해 노동하는 것도 게릴라에 합류해 싸우는 것도 아닌, "사막을 호박꽃으로 뒤덮겠다는"(making the desert bloom with pumpkin flowers; 158-9) 소박한 꿈이다. "일관적인 역사적 담론"(a coherent historical discourse)에 포착되지 않는 "실제 역사의 물질성"(the materiality of actual history; Durrant 435), 또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한 타자의 삶은, 마이클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지운 후에야 선명하게 떠오른다.

마이클의 비-인간화가 의미 있는 것은 그가 백인들의 타자를 향한 폭력적인 욕망을 고발하고 호모 사케르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마이클은 자신을 주체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물건들, 수용소에서 억압받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타자와의 연대를 시도한다.

> 마이클이 너무 가만히 누워 있자 처음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조그만 아이들이 다가와 그를 깨우려 했다. 그가 일어나지 않자 아이들은 그의 몸을 놀이에 **포함시켰다**. 그가 땅의 일부인 것처럼, 아이들은 그 위에 기어오르고 넘어졌다. 여전히 얼굴을 숨기고 뒹굴면서, 마이클은 **작은 몸들**이 등에 올라타고 있어도 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놀이에서 그는 뜻밖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다. 아이들과의 접촉으로부터 생기를 얻는 듯한 느낌이었다.
> [Michael] lay so still that the smaller children, having first kept their distance, next tried to rouse him, and, when he would not be roused, *incorporated* his body into their game. They clambered over him and fell upon him as if he were part of the earth. Still hiding his face, he rolled over and found that he could doze even with *little bodies* riding

> on his back. He found unexpected pleasure in these games. It felt to him that he was drawing health from the children's touch. (Coetzee, *Life and Time* 84 필자 강조)

돌멩이 마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마이클은 수용소의 아이들과 찰나의 일체감을 느낀다. 전쟁과 달리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평화로운 "놀이"에 "포함"되는 때, 연약한 이들은 그들만의 작은 공동체를 이룬다. 이는 3부에 묘사된 씨 포인트 부랑자의 은신처, 어린 마이클을 보호한 휴이스 노리니어스와는 사뭇 다르다. 씨 포인트에서 만난 부랑자들은 마이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무리 중 한 여자는 동정심의 표현으로 마이클의 성기를 애무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때의 접촉은 "생기"를 가져다주었던 아이들과의 접촉과 달리 불쾌감만을 남긴다. 마이클은 "여자를 밀어내고자"(push her off) 하고, 그녀의 "뻣뻣한 가발에 손을 대기 꺼린다"(recoiled from the stiff dead hair of the wig; 178-9). 아이들에게 기꺼이 몸을 내어줬던 마이클이 '도움'을 주려는 이들로부터는 "탈출"(escape; 182)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는 동정심이 또 다른 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이클이 동정의 대상이 되면서, 수용소를 탈출하기 위한 분투와 자발적 단식이 갖는 의미도, 마이클이라는 개인도 사라지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표상(representation)만이 남는다. 마이크 마라이스(Mike Marais)는 재현(represent)의 위험성을 이런 범주화와 연관시킨다. 타자를 재현한다는 것은 그의 타자성을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총체(totality)로서 인식함을 의미하며, 총체로 환원된 타자는 재현하는 주체의 권위를 뒷받침한다(a subjectivity [...] is structurally dependent on the totalizing violation of otherness for its self-sufficiency; 48, 46). 결국 마이클에게 동정의 딱지를 붙이려는 욕망은 호모 사케르를 만드는 주권자의 행위와 별 다를 바 없다.

한편 휴이스 노리니어스는 마이클을 교회에 데려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를 처벌하기도 한 "아버지"(father; *LT* 104)였다.[6] 하지만

---

6) 마이클은 휴이스 노리니어스가 자신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하며, 그의 목공 선생을 떠올린다. 선생은 "마이클의 귀를 비틀곤 했는데"(who twisted [Michael's] ear; Coetzee, *Life and Times* 105), 어린아이를 가차 없이 체벌하는 그의 모습은 이동 허가증을 받으러 온 마이클을 윽박지르던 경찰이나 그에게 총을 겨누던 군인을 연상시킨다.

아이들과 뒤엉켜 노는 마이클의 모습은 엄격한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다. 수용소 아이들과 마이클 사이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가 눈을 감고 "몸을 굴린"다거나 "땅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는 표현은 어머니의 자궁 안 태아를 떠올리게 한다. 모성 또는 어머니와 마이클의 연관성은 프린스 앨버트 방화범을 색출하기 위해 수용소에 경찰이 들이닥쳤던 때에 다시 한번 강조된다. 경찰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소지품을 검사하자, 그는 겁에 질린 여자아이들을 "끌어안아 보호한다"(protective circle of his arms; 90). 아이들의 곁에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녀는 아기를 돌보느라 미처 두 딸까지 안아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마이클이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 장면은 그와 아이들의 공동체가 아버지로 표상되는 억압적 사회 구조를 거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이들과의 공동체가 권력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던 '몸'을 매개로 형성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속에서 그들의 몸은 격리되어야 할 병균도, '노동력'이라는 이름으로 관념화된 무언가도 아니다. 그들은 "졸고", "기어오르고", 만질 수 있는 "작은 몸"으로써 존재한다. 이렇게 "모든 문화적 코드를 벗겨낸 ... **실재적인** 몸"(*substantial* bodies . . . stripped of all cultural codes; Durrant 439 필자 강조)은 하나의 물질(substance)로서 다른 물질과 물리적으로 연결되기에 이른다. 마치 부어만 씨의 아파트에서 마이클이 자전거 바퀴와 쇠막대를 조합해 손수레를 만들었듯, 마이클과 아이들의 몸도 놀이를 통해 전체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그는 신체를 분해하려는 욕망에 저항하고, 역사에 의해 담론화되어 버린 타자의 존재를 직시한다.[7]

지금까지 마이클이 사물과 동물을 경유해 비-인간이 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다는 것은 코스텔로가 『동물로 산다는 것』에서 언급한 "시적 상상력"(poetic invention)이 구체화된 결과이다. 그녀에 의하면 시적 상상력은 인간과 동물의 "숨결과 감각을 뒤섞으며"(mingles breath and sense)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를 "우리 몸 안에서 구현"(embody; 53)하도록 한다. 마이클은 타자를 폭력적으로 전유하지도 않고, 이성과 논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도 않는다. 그저 타

7) 두란트는 이와 관련해 "쿳시의 몸은 자기 자신의 상실을 애도하고, 그 소멸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시도한다." (Coetzee's bodies attempt to mourn their own loss, to tell the story of their own eclipse; Durrant 439)고 주장한다.

자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인간 이하로' 여겨졌던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적 상상력이 글자 그대로 상상의 영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이를 통해 권력이 펼쳐 놓은 그물망을 '근본적'으로 해체한다. 비록 그가 차별 정책에 직접 저항하거나 흑인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가 옳다고 굳게 믿고 있던 군의관에게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또 마이클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끈질기게 타자와 함께하는 삶을 그린다. 작품 마지막에서 씨 포인트의 낡은 아파트로 돌아온 마이클은 낯선 노인과 함께 수레를 타고 다니고 호박씨를 심으며, 군인들이 폭발시켜 버린 펌프에 바가지 대신 티스푼을 내리는 꿈을 꾼다. 그의 마지막 꿈은 마치 티스푼으로 물을 긷듯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권력의 모순을 폭로하는 것, 그 과정에서 자신을 주체로 내세우지 않고 타자를 끌어안는 것이야말로 윤리적 저항임을 말하고 있다.

참고문헌

Agamben, Giorgio. *Homo Sacer*. Translated by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UP, 1938.

Attwell, David. *J. M. Coetzee and the Life of Writing: Face to Face with Time*. Oxford UP, 2015.

Coetzee, J. M. *Life and Times of Michael K*. Vintage Books, 1983.

_____. *The Lives of Animals*. Princeton UP, 1999.

Crossley, Nick. "Body-Subject/Body-Power: Agency, Inscription and Control in Foucault and Merleau-Ponty." *Body & Society*, vol. 2, no. 2, June 1996, pp. 99-116.

Durrant, Samuel. "Bearing Witness to Apartheid: J. M. Coetzee's Inconsolable Works of Mourning." *Contemporary Literature*, vol. 40, no. 3, Autumn 1999, pp. 430-63.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ranslated by Alan Sheridan, Vintage Books, 1975.

Marais, Mike. "Writing with Eyes Shut: Ethics, Politics, and the Problem

of the Other in the Fiction of J. M. Coetzee." *English in Africa*, vol. 25, no.1, May 1998, pp. 43-59.

Teimouri, Mahdi. "Place and the Politics of Space in J. M. Coetzee's *Life and Times of Michael K*." *3L: The Southeast Asi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Studies*, vol. 22, no.1, Mar. 2016, pp. 29-38.

ABSTRACT

Pebble, Stick Insect, and Human:
Ethical Resistance in *Life and Times of Michael K*

Heeji Son

This paper examines how Michael K resists the authorities' oppression by identifying himself with objects and animals and intends to reveal its ethical valu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and the white in the novel imprison black vagrants in concentration camps. As Michael travels to his mother's birthplace without a permit, he soon gets arrested and is sent to a camp. The life in a camp is that of a *Homo Sacer*, who is banned from society and thereby all their rights as a citizen are forfeited. These abandoned people, however,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ociety completely but come into the social hierarchy agai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sovereignty's superiority. Michael's metamorphosis into a non-human being in such a condition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not 'forced' as in the case of a Homo Sacer but voluntary act. He does not yield helplessly to the authorities' desire to define him as a lesser human. He rather confuses them and recovers the materiality of his own body by becoming a non-human which is not explained by human language. Neutralizing their power and disrupting the hierarchy between the sovereignty and a Homo Sacer, Michael attempts more fundamental resistance. Michael's resistance is not only radical but ethical since he embraces the existence of the Others. Rather than privileging himself as a subject of representation, who totalizes the otherness, Michael chooses to live like a discarded object or a petty animal to which the black va-

grants in camps have been compared. He just accepts their existence as they are, stripping away negative cultural codes given by the sovereignty.

Key Words J. M. Coetzee, Life and Times of Michael K, Homo Sacer, non-human, ethical resistance, postcolonialism